

獨逸辭典에 朝鮮文 發音表

백림잇는 김중세씨의 활동
리관용박사의 독일 이야기

저자 미상

씨는 최근 구라과 형편에 대하여 말하되 『내가 공부하는 서서라는 나라는 불란서 디방, 이태리 디방, 독일 디방의 련방으로 된 나라인데 내가 가잇든 곳은 독일 디방이엿슴으로 내가 사귀인 사람들은 모다 독일 사람들이올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조선 사람**을 아는 사람이 만치마는 독일 사람으로는 아즉 조선 민족이 엿더한 민족인지 모르고 다만 일본의 일부분으로 알 쥔임니다. 그런대 구주 대전정 뒤에 독일 사람들은 모든 외국 사람을 다 미워하지마는 특별히 일본사람을 더 미워하얏는데 그 리유는 우리 독일 사람이 일본에게 모든 문명을 아르켜 주엇는데 일본 사람은 그것을 배워가지고 우리를 해하는데 쓰는 배은망덕의 나라 사람이라 하여 일시는 각 학교에서 일본 학생은 밋지 아니하고 혹 드러와 안저도 소래를 질너버여 쫓는 일이 만 하였습니다. 이 괴미를 본 일본에서는 묘책을 내이어 일본 각 대학에서는 해마다 몇 만원식 **백림대학**에 기부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넛가 경제덕으로 극히 곤난한 그들은 다시 일본 사람을 환영하게 되엿습니다. 이리하여 일시 조선 사람도 일본 사람과 똑가치 배척을 당하얏스니 대저 독일 사람으로 조선 사람이 엿더한 것을 리해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리유는 독일 사람으로 조선을 소개한 사람도 업고 또 조선 사람도 조선을 그들에게 소개할만한 저술이 업는 까닭이올시다.

조선학생으로 독일에 와 잇는 사람이 대략 른십명 가량인데 반수는 식골 잇고 반수는 서울백림에 잇습니다. 조선류 학생중에 유망한 사람도 만치마는 개성 사람 김중세(金中世)씨는 지금으로부터 십사년 전에 그곳에 가서 고대 철학(古代哲學)을 전문으로 연구하얏는데 아마 귀국하면 우리나라 철학계에는 일대 권위가 되겡습니다. 김씨는 원래 조선 잇슬 쎄에 불교를 만히 공부

하얏습으로 현재 구미 사람이 불교 연구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범어자언(梵語字典)을 만드는데 범어를 중국말로 쓰고 그 아래 파사범어(波斯梵語)를 대조하여 낱코 그 아래에 독일말로 번역하여 뜻을 달고 그 아래에는 **조선문**으로 발음을 다는데 조선 글로 독일 저술계에 그러케 쓰히기는 처음이요, 발음을 특히 조서글로 단리유는 세계 각국 글에 조선글가치 완전히 발음을 표시하는 글이 었는 까닭이올시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학비는 내가 잇슬 쎄(작년 십월)까지는 삼십원만 가지면 넉넉하얏는데 이후에 독일 돈이 아모리 오르드래도 한달에 백원 안팎으로 넉々히 공부할 수 잇슬 줄 아힙니다. 현재 독일은 경제상태가 말이 못되고 인민은 다시 제정(帝政)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만하서 료리덤 가튼 곳에도 전독일 황제의 사진을 걸고 숭배하는 것을 보앗습니다. 올 쎄에는 미국으로 도라왔고 장래는 교육계에 종사할 터이올시다.』 하더라.